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여차하면 제2의 촛불혁명이

연말이다. 언제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버렸을까. 신기할 정도다. 시간의 흐름과 보조를 맞춰 인간들의 마음도 평화로워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연일 사건발생들이다. 그것도 소강하게. 무섭다 연말일수록 느슨해진 인간의 마음이 황야의 이리떼들 같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며칠 전이 성탄절이었다. 예수께서 인류의 원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벌써 오신지가 2018년이나 된다. 그런데도 인간들의 마음은 왜 이리도 사악해져 갔을까. 예수께서 인간의 원죄를 안고 돌아가신 지도 1,985년이나 되는데도.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조용히 생각들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우선 내적 평화를 기하기 위해 하루에 10분정도는

목상해 보는 게 어떨까. 하루 일과를 끝낸 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두 눈을 꼭 감고서, 어깨에서 힘도 빼고, 그러면 지나간 하루의 일과가 주마등처럼 스쳐갈 것이다.

그러면서 내적인 평화를 기해보자. 두 번째로는 남나노소는 물론 반공자, 이주민, 난민,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등의 아름다움과 다름을 수용하자.

우리 모두는 하나다. 그 누구도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다. 능력이 있다. 특징이 있다. 상황에 따라서 각자 다름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 다름을 수용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평화를 향유하기가 매우 어렵다. 어쩌면 불가능하지도 모른다. 차별만인 존재할 뿐이다.

세 번째로는 생태계를 보존하도록 노력해보자. 우리나라의 폐비닐이 저 멀리 떨어진 필리핀 앞 바다까지 오염시키고 있다잖은가.

큰일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엄마와 같은 지구로 더 이상 괴롭히지 않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쓰지 않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쓸수록 우리의 목숨이 조여진다는 것을 인식하자.

오늘날은 기상이변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지구의 온도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 성서에서 말하길 과거에는 지구가 불로 멸망했지만 미래에는 불로 망한다고 했잖은가. 20세기 말기만 해도 이를 실감할 수 없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는 저절로 실감된다.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징조를 무시하고 그대로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재앙의 날이 올지도 모른다. 때문에 자연친화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자기가 믿는 종교가 아닌 이웃종교도 존중하라는 것이

다. 그 어떤 종교이든 인류가 인정하고 믿는 종교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수많은 인간들을 제도해왔다. 때문에 내가 믿는 종교가 아니라고 해서 무시한다든지 반목을 거듭한다면 스스로 믿는 종교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마땅하다.

기독교에서 특히 중요시하는 것은 사랑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지 않았는가. 이 논리로 보더라도 다른 종교의 신앙인들은 누구인가. 바로 이웃들 아닌가. 불교의 자비심 역시 마땅하다. 자신이 믿는 종교의 교리에는 어떤 종교이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내포하고 있다.

때문에 이웃이나 타 종교를 무시하면 결국 자신의 종교 교리를 위배하는 것이 된다.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말이다.

다섯 번째로는 정치와 경제 및 노동정의를 실천하지는 것이다. 요즘 날마다 싸움질들이다. 정치계도, 경제계도, 노동계도 모두가 밤그릇 싸움이다. 그럴 듯한 명분을 붙여가면서, 국민들을 무시하지 말라. 모두가 고학력지고 인터넷 전문가들이다. 그만큼 잘 안다는 뜻이다.

앞으로 여차하면 제2의 촛불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 명심 또 명심하길 바란다. 진정한 우리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社說

종교인 성실하게 납세해야

내년부터 교회 목사나 사찰의 스님, 성당 신부 등과 같은 종교인도 추가적인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 신상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은 내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 외에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종교인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 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연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뒤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이뤄진다.

비과세소득은 ▲종교인 본인 학자금 ▲월 10만원 이하 식대 ▲종교활동비 포함 실비처리된 급

여 ▲월 10만원 이내 출산 및 보육비 ▲사택제공이익 등이다.

여기에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필요경비를 80%가 적용된다. 60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 3200만원에 6000만원 초과 금액의 20%를 더한 금액이 필요경비로 제외된다.

내년 1월부터는 유형업소나 단란주점에서 결제되는 카드금액의 110분의 4가 부가세로 징수된다.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체납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가 부가세를 대리징수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신용카드사는 징수한 세액을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정부의 종교인에 대한 과세로 모든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豈敢毀傷
어제 기
감히 감
힐 췌
다칠 상

▷ 뜻: 부모(父母)께서 낳아 길러 주신 이 몸을 어찌 감(敢)히 훼손(毀傷)할 수 없음.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단순한 시건개방은 '긴급' 구조상황 아니다

소방청은 119생활안전 출동기준을 '상황별 기준'으로 '긴급', '잡재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구분하였다.

즉각 조치하지 않으면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긴급', 긴급한 상황은 아니나 방치할 경우 2차 사고가 날 수 있는 '잡재긴급', 긴급하지 않고 인명이나 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비긴급'이다.

하지만 아직도 대원들은 현장활동간에 긴급상황이나 아니냐 또한 현장활동 처리 방법에 따라서 국민(민원인)들과 시시비비를 가르는 일이 종종 있다. 한 가지 출동

종류를 예로 들자면 단순한 시건개방이다. 이 단순 시건개방은 아무런 위험요소가 없는 '비긴급' 상황으로 주택 환관 및 방문 개방, 자동차 시건개방 등이 있다.

그렇지만 국민(민원인)들은 단순 시건 개방자체가 소방서의 고유임무인걸로 알고있는 실정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자면 '단순한 문 개방, 시설물 등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 제거, 동물의 단순처리 및 포획, 주민불편해소 차원의 단순민원 등 구조 활동의 필요성이 없는 단순구조요청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령(구조·구급활동 제 13조, 20조1항)를 근거로 거절할 수 있다' 그렇기에 단순 시건개방은

응급상황이 아니기에 출동을 지양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방서 대원들은 출동지령을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다. 현장활동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접근장치가 되어있는 문들을 피해손실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수많은 고민을 한다.

현관문의 문고리 파괴를 하게되면 문고리를 교체비용은 관계인이 지불하는 것이 맞지만 방화문의 쪼그러짐, 문개방시 유격이 발생하였 경우 또한 다른 예를 들면 자동차의 시건개방을 하기위해선 틈새를 벌려야 하는데 차후 발생되는 문의 뒤틀림, 누수 등의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여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단순 문개방은 가까운 열쇠수리점을 이용하거나 이파트 경비실에 민방 키를 제작, 경비실에 비치한 민방기는 긴급한 구조출동 대응에 보탬이 될 것이고 자동차의 경우는 개인의 자동차보험 회사에 연락하여 처리하면 더욱 신속하게 업무를 볼수 있을 것이다.

소방대원들이 이 단순시건개방을 지양하여주길 바라는 가장 큰 이유는 '비긴급' 출동으로 인해 정작 '긴급' 상황에서의 소방력 동원이 어려워 구조 활동이 지연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국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이해가 소방관들의 고충해소가 아니라 '긴급' 상황에 처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정찬영 / 화순소방서 119구조대 소방교

湖南新聞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국인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를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